보험계 동정

● 손보협회 48주년 기념식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 1일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직원 2명과 장기근속직원 12명을 표창했다.

● 쌍룡사 건물가액평가 전산화

쌍룡화재해상보험(주)는 건물가액평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국내 각 건물의 종류 및 구조를 1백여 Code로 구분,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물건을 전산 조회하면 컴퓨터내에서 연산이 이루어져 당일 현재의 건물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 On-Line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가액평가로 시간절약은 물론, 거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색보험 체결

삼성 화재는 지난 8월 25일 국내 최초로 우유개량사업소와 정액생산 소인 종모우를 보험목적물로 하고, 계약기간 1년, 보험료 4천 8백만원인 동물보험을 계약했다. 이에따라 삼성화재는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경제적 사용 가치 및 생식 기능의 상실로 인한 도살 등으로 종모우 4마리가 죽을 경우 4억 9천만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전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8월 25일 성산동 정비단지로 이전, 도장보수에 필요한 시설 및 조색실, 2개소의 강의실 등을 갖추고 업무에 들어갔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3-3, 전화는 375-8501~3이다.

● 해동사 창립 41주년 기념식

해동화재해상보험(주)는 회사 창립 41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5일 김동만 회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을 표창했다.

● 풍수해 특약 이용율 저조

해마다 정기적인 풍수해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시 풍수해 특약을 담보로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92년 기준, 사상자가 32명·피해액이 2백 40억 6천만원에 달했으며, 93년의 경우에는 사상자가 1백 16명·피해액이 1천 9백 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럭키사 기업문화 최우수상 수상

럭키화재해상보험(주)는 고객서비스 혁신, PL운동 및 사회복지사업 등 활발한 사회사업을 인정받아 문화체육부가 주관한 94년도 제1회 대한민국 기업문화상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럭키화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라는 그룹이념의 기치아래 CS-고객과 안심을 경영의지를 삼아 경영혁신 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소방계 동정

● 소방안전 특별 점검

내무부는 전국의 유흥업소 2만 8천 3백 28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 대책을 수립, 규모 위주의 방화기준을 취약 업종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유흥 음식점의 경우, 바닥 면적에 관계 없이 불연 내장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 한편, 2급 방화관리 대상인 유흥업소도 1급 방화관리 대상에 준에 연 2회의 소방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흥음식점 허가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를 실시(보사부 협조)하는 한편,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시켜 놓거나, 비상구 등을 폐쇄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의 고장 또는 고의 차단 방치 등 유지상태, 불연 내장재 사용 및 방염처리 여부, 비상구 등 피난통로의 시계 차단 여부, 피난통로를 막아 롬으로의 개조 여부, 전기 설비의 안전 사용 여부, 배연창의 폐쇄 여부 등이다.

● 어린이 소방대 자매 결연등

여천소방서는 어린이 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시범 어린이 소방대인 쌍봉국민학교와 호남정유(주) 여천공장간의 자매 결연 행사를 주선하는 한편, 여천군 청소년 수련장에 소방홍보 전시관을 설치, 수련원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종교단체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불조심 생활화는 물론, 각종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었다.

●전시 화재대비 훈련

전시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물의 화재에 대비한 고층건물 대형화재 진압훈련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극동빌딩에서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이 실시됐다.

지상 24층 지하 3층의 고층건물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는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 집중 실시됐으며, 중부소방서·중부 경찰서 대한적십자사 등 7개 기관 1백 88명과 33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119구조대 설문 조사

내무부는 119구급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부산 등 7개 도시의 구급대 이용자 3백 15명 중 2백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92%가 전화 즉시 출동하였으며, 86%가 아주 친절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73%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이 우수하다고 답하였으며, 68%는 원하는 병원까지 이송됐으며, 53%가 이송 도중 근육 맛사지나 인공호흡·혈압 측정 등의 응급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119구급대가 국민보건정책에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구급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구급업무를 전문화 시키기로 했다.

●정왕선 이사장 연구소 순시

협회 정왕선 이사장은 지난 6월 29일 방재시험연구소를 순시하고 시공중에 있는 음향시험동과 건재시험동 등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안전 사고 방지를 각별히 당부했다.

●FILK 인증품 할인율 설명회

협회는 지난 8월 12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외 10개 사원사 위험관리과장과 화재과장을 협회로 초청,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료 할인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FILK인증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인증업체의 현황, 품목, 전망 등을 소개한데 이어 질의 및 건의가 있었다.

●슬라이드 제작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에서는 시험 연구업무 전반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제작, 시사회를 가졌다. 각각 국·영문으로 제작한 슬라이드는 15분용으로서 방재시험연구소를 찾는 내·외국 방문객에게 상영된다.

●특별 직무교육

협회는 지난 7월 2일 미국의 PLC(Professional Loss Controll)의 Kenneth W. Dungan 사장을 초청, 방화 공학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원수사의 위험관리팀도 초청, 협회 임직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교육 종료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로이드 선급협회로부터 시험기관 지정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영국의 로이드 선급협회로부터 화재와 관련한 선박의 격벽·갑판·방화문·전선 관통 구성부재 등 선박에 사용되는 제품의 내화도를 시험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으며, 세계선급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시험·연구 능력은 물론, 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공인받음에 따라 방재시험염구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외국에 의존했던 시험 성적서 발급을 방재시험연구소가 대신함에 따라 외화의 절감 효과와 함께 시간적·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재시험연구소 견학 활발

방재시험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험시설 견학을 위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소방안전협회 경기도지부 직원 등 30여 명, 20일 주택은행 근무 방화관리자 40여 명, 7월 17일 내무부 소방간부 후보생 41명과 럭키화재 신입직원 31명, 21일 충주산업대 교수 12명 등이 각각 방재시험연구소를 방문, 시험 연구 시설을 견학했다.

특별 점검 안내
(직) (02) 780-8159
(교) (02) 780-8111